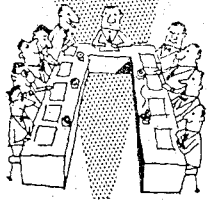


經營



消費財合作投資의 問題點

消費財 合作投資抑制의 富爲性

韓國經濟가 1·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遂行을 通해서 GNP成長 年平均 9.2%, 그리고 輸出 40%, 製造業 17.2%의 各 年平均成長值를 나타낸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國際異例인 高度成長의 持續이었다.

다만 우리가 看過해서는 안될點이 없지않으니 그는 이같은 高度成長이 韓國經濟의 脆弱性을 不可避의으로 隨伴시킨 側面이다.

즉 重化學工業施設등 꼭 必要한 生産態勢定立이 뒤로 미루어진 狀況에서 消費性 輕工業分野는 過剩施設에 허덕이는 業種들이 수두룩하다. 또 「消費가 美德」이란 美國과 같은 大經濟國에서나 어느時期동안에 悭肯定될 수 있는 消費獎勵的인 流行語의 뜻을 日常生活面의 實踐으로 옮겨버린 傾向이 짙어졌다. 經濟가 「高度成長」하였지만 「高度消費」도 해왔다는 이야기가 實感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그런데 특히 寒心스러운 것은 外資를 들여와 過剩生産施設을 함으로써 既存施設을 古鐵化시키고 失業者를 量産하는 경우이다.

多幸히 이러한 惡循環을 是正하려는 政府의 熱意를 볼 수 있게된 것 같기는 하다. 즉 앞서 스위스에 母體를 둔 世界最大의 食品會社인 네슬社가 우리나라 非食品系企業과의 合作體制로 上陸을 企圖한다하여 食品工業界는 勿論 國內企業界에 드물게 보는 쇼크를 주었다. 네슬社는 世界 100餘個國에 70餘個의 子會社를 갖고있는 大財閥會社이니만치 萬一에 네슬의 韓國上陸이 許容된다면 其他業種의 外國財閥企業이 韓國에 있어서의 第2, 第3의 네슬이 될것을 試圖할 可能性이 豫見되었기 때문이다.

尹
章
奎

△韓國產業政策研究所▽

이같은 國內企業界의 不安을 一掃한것이 南副總理의 5月 21日 記者會見內容이다. 「앞으로 消費財部門에서는 技術導入만 許容하고 合作投資등을 不許한 方針이며 技術導入을 憑藉하여 外國有名會社의 商標를 함부로 使用하는 行爲도 強力히 規制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으니 外資業務의 主務部인 經濟企劃院의 長官으로써의 方針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後 열흘 남짓한 時日을 지낸 6月 4日에 南長官은 나쁜外資導入은 根源에서부터 規制하겠다고 또한번 強調하였던 것이다. 外資導入이 認可된 後에 條件變更을 하거나 外國人投資側에 對한 過當한 收益保障을 하는 것등에 대해서는 認可段階에서 慎重히 檢討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韓洋化學은 美國 다우케미컬과의 合作條件으로 年間 36.5%의 收益을 美側에 保障해 주었다. 때문에 그를 뒷받침하는 方法으로 同社製品인 폴리에틸렌價格의 10%引上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例가 또 他에 波及되거나 않을까 需要層의 神經을 刺戟하고 있는 時點에서 南長官의 그같은 政策見解의 公開는 效果的이었다고 여겨진다.

警戒해야할 輸出增進政策에의 便乘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開發途上國들의 經濟開發過程에는 副作用이 거의 不可避的으로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副作用을 어떻게 해서 最小限度로 막느냐 또 이미 일어난 副作用을 如何한 方法으로 迅速히 그리고 副作用除去作業이 또다른 副作用을 招來시키지 않게끔 是正하느냐가 남아있는 重要한 課題일 뿐이다.

그런데 高度成長에 따라오고 또 숨어들게된 副作用은 많이 外資와 連關된다. 그 까닭은

大概의 開發途上國들이 經濟開發을 위한 外資依存도가 높은 事實에 있다. 外資를 많이 導入케되니 副作用의 類型과 規模도 그나름대로 많고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開發國의 外資依存도가 높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라들의 國內資本力이 貧弱한 때문이고 個個의 單位와 全體規模가 커지게 되는 것이 때로(單位)는 받아들이는 側으로써의 被動이다. 다시 말하자면 借款을 供與하거나 合作投資에 應하는 側主로 先進側이 規模의 經濟에 執着하는 경우가 많다. 큰 事業을 위한 借款供給을 하려 하고 合作投資일 때는 더구나 큰 工場을 세워서 既存工場製品들의 國內市場을 吸收하겠다는 것이 흔히 짐작할 수 있는 外國人投資者들의 속셈인 것 같았다.

하기는 100%의 輸出 또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國內消費보다 高率의 輸出을 한다는 事業計劃으로 큰 工場들을 新設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外資導入認可를 받은 後에 條件變更의 節次를 밟아서 國內市販率을 올리는 例들이 物議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國際常例로는 輸出增進을 目的으로 新設되는 生産企業이라고 하더라도 100%의 輸出計劃으로서가 아니라 30%輸出, 70%內需의 比率로 生産販賣計劃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다.

元來 海外市場을 相對로하는 輸出業은 갖가지 海外情勢의 意外變動에 左右되는바 國內市場의 그것을 比할 수 없을 만큼 甚大하다. 그러므로 結果적인 100%輸出이라면 勿論 마다 할바 아니지만 企業體를 新設하는데 있어서의 製品販賣計劃으로 100%輸出을 豫定하는 것은 無謀가 아니면 企業常道에서 벗어나는 底意에 立脚하는 創業姿勢이다. 大規模의 工場을 新設하여 既存의 多數工場을 自然淘汰시키려는 勝算을 세우는 것이고 輸出 100% 或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非正常的인 高率의 輸

出計劃으로 外資導入節次를 밟는 경우는 政府 許容을 받는 方法으로 擇해지고 있을 뿐이다.

南長官이 外資導入認可段階에서 慎重을 期해야 한다고 말한것은 外資導入에 正當한 關心을 가져온 모든 사람들의 期待해온 바이다. 다만 여기에서 蛇足を 붙인다면 慎重檢討의 對象點을 빠짐없이 設定하여 그 個個의 基準을 明確히했으면하는 그것이다. 예를 들자면 外國人投資企業體인 경우 外國에 있는 投資本社 또 그 直傍系會社가 約束을 어기지 않고 어길 수도 없는 條件下에서만 100%輸出등의 計劃確率을 政府가 外資導入許容上 認定하고 輸出比率의 引下는 條件變更의 考慮對象에서 除外하며 消費財部門의 施設의 導入을 不許해야 할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外資의 增大와 浪費排除의 緊切性

우리가 消費財部門의 施設擴張등을 위한 外資를 合作投資로 받아들일 수 없는 所以는 稿頭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重化學工業部門의 建設이 아직 너무도 박찬 내일의 課題로 進行過程에 있는것과는 對照的으로 消費財部門에서는 施設過剩 상태를 呼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80年代의 中進國指向에 所要되는 外資가 우리의 經濟規模로는 만만치 아니한 巨額인 때문이다.

첫째로 75年度 總資源豫算으로 지난 1月 22日 確定發表한바에 依하면 資本去來(純)로 15億 2千 7百萬弗로 計上되어 있다. 長期 11億 4千 6百萬弗, 短期 3億 8千 1百萬弗의 巨額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터이므로 비록 1달터 1센트라 할지라도 可能한限 外債의 增加는 避해야 할 일이다.

둘째로 앞으로 3年間(75-77年) 82億 8千 4百萬弗이란 巨額의 外資導入을 하여야만 躍進

經濟의 成長및 받침이 된다는 것이고 그 目標의 몇가지는 ① IBRD(世界銀行)의 새마을개발費 19億 4千萬弗 ② ADB(아시아開發銀行)의 民間企業育成을 위한 轉貸借 5千 6百 20萬弗 ③ 美國의 AID 및 輸出 銀行의 17億 5千萬弗(31件)등이다.

非企業倫理的인 合作없어야

外債重壓에 事前對處하는데 있어서는 政府와 業界가 呼吸을 같이 하여야만 所期の 效果를 거둘 수 있다. 政府가 75年度의 經濟政策 基本方向을 밝힘에 있어서 國際收支防禦를 9個項目中の 둘째로 들었고 新春劈頭의 1月 7日에는 外國人投資企業의 認可基準을 마련, 外國人投資의 選別誘致를 할 것이라 傳해짐으로써 臺灣, 필리핀에서 이미 좋은 成果를 거두었음을 想起시켰다. 그리고 最近만 하더라도 前記한 바와같이 南長官의 두차례에 걸친 外國人投資 選擇主義의 言明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業界가 良質이라 볼 수 없는 外國人投資와 無分別한 合作에 應하고 심지어는 非企業倫理的의(同業者 또는 同業者 아닌 國內既存企業體를 倒産시킴으로써 自體企業이 存立할 수 있는 企業新設計劃)이, 意圖에서 外國人投資家를 불러들인다면 政府의 良質外資導入爲主政策도 때로는 빗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認可申請등을 慎重檢討한다고 하더라도 誤判을 100% 막아낸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過去 10餘年동안에 韓國經濟는 그 規模가 놀랄만큼 커졌고 構造的인 現代化 過程을 빠른 速度로 걸어왔으며 지금도 견고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적지 않은 外債도 걸머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今年中 그리고 3年間 나아가서 80年代初까지 들여와야 할 外

資가 또한 尙大한 點을 위의 統計가 實感케 한다. 이는 外資導入은 꼭 必要한 것만을 해야 할 事實의 再認識을 뜻하는 것이다.

政府의 努力과 對外公信力에 依해서 每年 導入外資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단 多幸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外國人投資 및 國內外國人商社들의 果實 및 收益金으로 海外에 送金되는 額數도 늘어나고 있다. 今年 1,4分期만 하더라도 1億 2千萬弗線을 突破하여 前期보다 79萬弗 들어났으며 昨年同期의 6千 3百餘萬弗에 比해서는 實로 約倍額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外資의 導入은 通貨 및 金融의 硬直化와 壓迫의 要因도 된다. 外貨가 元貨로 바뀌어져야만 國內流通이 可能하므로 現物借款, 現物投資(外國人投資分)가 아닌限 그만큼 其他 金融의 蝕食要因이 아니될 수 없다.

不利한 合作投資를 막는 길

네슬레의 合作投資計劃의 경우를 具體的인 一例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세계 100餘個國에 70餘個의 子會社를 갖고 있는 네슬레는 커피, 쥘코렐, 淸涼飲料, 菓子類, 시빅食品, 乳製品, 高營養食品等 加工食品 全般에 걸쳐 1,300餘種의 製品을 生産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從業員 13萬名, 年間 60億弗이상의 賣上을 올린다는 世界最大의 食品會社로서 韓國上陸의 試圖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즉 네슬레는 數年前부터 커피製造의 合作會社의 設立을 試圖하다가 挫折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離乳食스우프파우다 및 食品強化用蛋白抽出物을 製造販賣코자 國內合作業體와 各 50%의 合作會社를 新設하되 輸出 60%, 國內販賣 40%의 比率의 生産計劃이란 것이다 當局에 依하면 離乳食의 生産施設은 國內 8

個既存業體가 오래前부터 尙大한 施設投資에 先進技術도 追及하여 우리實情에 알맞는 優秀 製品을 生産供給하고 있으나 稼動率이 10%에도 未及하고 있는 過剩施設이 問題點으로 남아 있으며 스우프파우다와 蛋白抽出物의 製造 또한 先進技術의 導入으로 製品開發이 되어있으며 오로지 原料確保 및 市場性등을 勘案하면서 本格的인 實生産直前段階에 있다는 業界實情이다.

結論하자면 첫째로 前記한바의 政府方針에 비추어 볼 때 消費財施設의 合作投資에 依한 導入은 許容되지 않을것 같으며 둘째로 비של의 合作投資는 生産하려는 品目들이 既存하고 있는 施設·技術등으로 보아서 더구나 許容되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그같은 與件(關係品目的 生産施設 및 技術水準 그리고 엄청난 過剩施設등)下인데도 不拘하고 비של社가 거듭 上陸을 企圖하는에는 그만한 理由가 있을 것이다. 즉 그 하나는 우선 不過數個品目으로 上陸한 後에 2次的, 3次的으로 品目追加를 하여 큰 收益을 올리려는 長期的인 計劃이 아닌가 하는 點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虛點이 있어서 上陸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고 오산한 때문일것도 같다.

세째로 무릇 나라를 위해서 關係業界를 위해서 不利한 合作投資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면 業界의 自覺이 切實히 必要하다. 甚한 경우는 同業者多數를 犧牲시킬것을 前提로 하는 合作投資를 誘致하는 例마저 없지않았다.

네세로 輸出增進의 一念에 치우친 나머지 「로열티」를 厚히 주고 事業에 밀저도 外國人投資者에게는 優先的으로 一定한 收益을 保障해주는 등 一方的인 合作投資契約도 있었던 不合理한 過去의 例를 거울삼아서 이러한 再版을 官民一致, 막아내야 할 姿勢를 가다듬어야 하겠다.